



소개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그랑 소네리

칼리버 182 의 재해석

주요 정보:

- **15 가지 컴플리케이션:** 그랑 소네리, 삐띠 소네리, 미닛 리피터에서 15 분 단위와 정각을 알리는 웨스트민스터 차임, 1,300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무브먼트에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와 플라잉 투르비온 탑재
- **그랑 소네리 칼리버:** 4 개의 공과 4 개의 해머가 15 분마다 차임을 울리며, 차임 위치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가 지닌 탁월한 노하우를 입증
- **기술적 진보:** 음향 성능을 향상시키는 티타늄 내부 케이스와 새롭게 설계된 메탈 글라스 공, 차임 메커니즘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안전장치
- **새로운 미학:**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형태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오픈워크 다이얼

예거 르쿨트르가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를 선보입니다. 최초의 손목시계용 차임 그랑 컴플리케이션인 칼리버 182 를 새롭게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2009 년에 출시한 히브리시 메카니카 그랑 소네리를 통해 처음 선보인 칼리버 182 는 위치메이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모든 차임 메커니즘 중 가장 진귀한 웨스트민스터 차임의 그랑 소네리, 삐띠 소네리, 미닛 리피터에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 플라잉 투르비온, 두 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결합했습니다. 당시 제작된 손목시계 중 가장 복잡한 제품이자 칼리버의 동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가 2007 년 발명한 혁신적인 듀오미터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극도로 복잡한 칼리버 182 는 1,300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만 1 년이 소요됩니다. 조립, 분해, 조정 및 세척, 최종 조립의 네 단계에 걸쳐 총 16,000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축적해 온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칼리버 182 를 재해석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차임의 음향 품질을 개선하고 무브먼트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칼리버 182 를 위해 개발한 기술 6 건을 포함해 총 8 건의 특허가 적용된 통합형 무브먼트는 15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엘리게이터 스트랩 버클의 미세 조정 메커니즘으로 9 번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위대한 차임 위치의 유산을 계승하는 타임피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50 여 년 동안 차임 위치는 예거 르쿨트르가 전문성을 발휘해 온 분야로, 다른 클래식 컴플리케이션과 함께 메종의 탁월한 위치메이킹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은 비교적 단순한 알람부터 그랑 소네리와 웨스트민스터 차임 등 200 가지가 넘는 다양한 차임 위치 칼리버를 개발했습니다. 1870 년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제작한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로 명성을 얻으며 여러 저명한 위치메이킹 브랜드에 차임 무브먼트를 공급했습니다. 캐시드럴 공과 무음 타종 거버너부터 크리스털 공, 트레뷰쎄 해머, 듀플렉스 공까지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며 기계적 효율성과 사운드의 선명함 및 아름다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그랑 소네리는 매시간 및 15 분마다 자동으로 차임을 울리는 동시에 탁월한 동력 관리, 정확성, 기계적 복잡성을 요구하는 소네리 분야 최대의 난제로 손꼽히며 복잡한 위치메이킹의 정점에 있습니다.

칼리버 182: 듀오미터 컨셉을 기반으로 한 15 가지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182 개발에는 5 년이 넘는 집중적인 연구와 매뉴팩처가 지난 150 년간 축적해 온 차임 위치 노하우가 집약됐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알리는 칼리버 182 는 극도로 정교한 타종 메커니즘에 날짜, 월, 요일을 표시하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12 시 방향에 윤년을 표시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춘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했습니다. 모든 퍼페추얼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다른 달과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지속적으로 와인딩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2100 년까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잉 투르비옹 레귤레이터 및 각각의 메인 배럴에 해당하는 두 개의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원: 동력 관리가 중요한 만큼, 그랑 소네리 칼리버는 듀얼 배럴 무브먼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2007 년 자체 개발한 듀오미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칼리버 182 를 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위치메이킹의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한 이 컨셉은,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일정한 동력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흐름을 방해하는 강력한 추가 동력 소모 컴플리케이션을 제어해 냅니다. 듀오미터 메커니즘은 독립적인 기어 트레인이 있는 2 개의 배럴을 하나의 칼리버에 탑재하고, 이를 단일 조정 기관에 연결합니다. 칼리버 182 의 경우, 배럴 한 개는 시간 및 퍼페추얼 캘린더 표시를 움직이는 기어 트레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배럴은 차임 기능을 구동하는 기어 트레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두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시간 측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간 측정 및 캘린더 기능을 담당하는 배럴은 48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차임 메커니즘 전용 배럴은 그랑 소네리 모드에서 총 616 개 음(7 시간 30 분 연속 차임), 뽀띠 소네리 모드에서 최대 992 개 음(32 시간 차임)을 울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칼리버 182 는 듀오미터의 기본 구성인 두 개의 배럴 외에도 세 번째 배럴이 있어, 크라운의 푸시 버튼으로 대체된 트리거의 와인딩 동작을 대신합니다.

차임: 풍부한 음색의 고유한 멜로디

세 가지 차임 방식: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공을 사용하는 미닛 리피터 및 대부분의 소네리 무브먼트와는 달리 칼리버 182 는 4 개의 공과 4 개의 해머를 갖춰 네 가지 서로 다른 음을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런던 빅벤의 유명한 멜로디인 웨스트민스터 차임을 구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칼리버 182 만의 개성을 더하기 위해 이례적인 차임 순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랑 소네리와 뽀띠 소네리는 먼저 15 분 단위 멜로디를 연주한 뒤 해당 시간을 알리는 반면, 미닛 리피터는 시간, 15 분, 분 순으로 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616 개의 음, 7 시간 30 분: 칼리버 182 의 네 가지 음(E, C, D, G, 미-도-레-솔)은 4 개의 공에 하나씩 배정됩니다. 서로 다른 배열로 이루어진 다섯 구간으로 연주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15 분마다 고유한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15 분 차임의 멜로디는 4 개의 음(한 구절)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15 분은 8 개의 음(4 개 음으로 구성된 두 구절), 세 번째 15 분은 12 개의 음(4 개 음으로 구성된 세 구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랑 소네리 모드에서 시간을 알리는 멜로디는 각각 4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여섯 구절, 총 24 개 음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타종 메커니즘을 탑재한 타임피스에서 연주되는 가장 긴 그랑 소네리 멜로디 중 하나입니다.



칼리버 182 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차임 멜로디의 품질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타종 메커니즘을 적용한 타임피스에서 공의 형태는 차임의 맑은 음색과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예거 르쿨트르의 차임 전문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들이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해 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칼리버 182 는 다양한 부분을 개선해 음향 성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공의 길이를 늘려 공명 폭을 넓히고 고정 방식과 조율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동시에 공의 형태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또한 내부 케이스 본체와 케이스백 베젤을 티타늄으로 제작해 더욱 선명하면서 아름답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연주합니다. 모든 차임은 하나의 화음이며, 각각의 화음은 근음과 이를 보완하는 다른 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워치메이커가 공을 조율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근음뿐입니다. 그러나 칼리버 182 는 공의 형태를 정밀하게 조정해 근음 및 화음을 구성하는 나머지 여섯 개의 음까지 모두 조정할 수 있어 더욱 아름다운 선율을 완성합니다.

첨단 메커니즘, 강화된 안전성과 직관적인 조작

차임 하나하나에 숨겨진 정보: 차임 위치의 핵심은 스네일과 랙으로 이루어진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아워 및 미닛 핸드의 위치를 그에 맞는 타종 횟수로 변환합니다. 칼리버 182 에서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고유한 차임 순서와 멜로디를 제어합니다.

모든 타종에 숨겨진 정확성: ‘타종 순서 거버너’는 랙에 신호를 전달하여 정확한 순서로 차임을 울리는 데 필요한 위치로 랙을 이동시키는 타워 형태의 메커니즘입니다. 선택한 모드에 따라 그랑 소네리와 뽀띠 소네리는 먼저 멜로디를 울린 뒤 시간을 알리고, 미닛 리피터는 시간, 15 분 단위 멜로디, 분의 일반적인 순서로 차임을 울립니다. 다이얼의 8 시와 9 시 방향 사이의 초소형 메커니즘은 22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높이는 6.04 밀리미터에 불과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이 ‘투르 앙페르날(*tour infernale*)’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구조의 두 번째 타워 메커니즘은 다양한 멜로디를 만들어 내는 네 가지 음의 여섯 가지 배열을 제어합니다. 스네일 다섯 개를 쌓아올린 장치는 그랑 소네리 또는 뽀띠 소네리 모드에서 울려야 할 15 분 멜로디와 미닛 리피터 모드에서 연주해야 할 시간 및 분 관련 정보를 랙에 전달합니다.

직관적인 제어, 정교한 구조: 차임 메커니즘은 잘못 조작할 경우 손상되기 쉬우므로,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은 사용자가 특정 시점에 선택한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드를 ‘비활성화’하는 셀렉터



메커니즘을 칼리버 182 에 적용했습니다. 선택한 모드는 다이얼 6 시 방향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은 시간 설정을 의미하며, 세 가지 차임 모드는 G(그랑 소네리), P(쁘띠 소네리), S(무음)로 표시됩니다. S 모드에서는 자동 소네리 차임이 차단되지만, 필요에 따라 미닛 리피터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칼리버 182 에는 미닛 리피터를 위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도 추가됐습니다. 앞선 차임 시퀀스가 끝난 후 메커니즘이 완전히 '리셋'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다시 차임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 오조작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은 케이스 밴드에 세팅한 푸셔 두 개와 크라운에 세팅한 세 번째 푸셔, 총 세 개의 푸셔로 조작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 182 는 무브먼트에서 미닛 리피터로 직접 동력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밴드에 리피터의 메인 스프링을 '충전'하는 전통적인 슬라이드를 장착할 필요 없이, 크라운의 푸셔만으로도 미닛 리피터를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 아래에 위치한 푸셔는 차임 모드 선택터의 역할을 하며, 다이얼에는 G, P 또는 S(무음/미닛 리피터)로 표시됩니다. 크라운의 일반적인 기능도 크라운을 여러 위치로 당기는 방식이 아닌 이 선택터를 통해 제어됩니다. 시계를 와인딩하려면 S 를(자동, 지날 때 울리는 기능, 차임 기능 비활성화), 시간을 설정하려면 네 번째 모드인 M(시간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크라운 상단의 푸셔를 사용하면 퍼페추얼 캘린더의 요일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및 날짜 조정 장치는 12 시 방향의 러그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프 올로제리 마감으로 완성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의 다이얼은 더욱 과감하게 오픈워크 처리되어 아름답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더욱 자세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분-캘린더 다이얼의 직경을 30%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 균형감을 더했습니다.

메인 다이얼과 시-분-캘린더 다이얼은 다크 블루-그레이 래커로 장식해 움직이는 부품 및 핑크 골드 디테일과 대비를 이룹니다. 핑크 골드는 10 시와 11 시 방향 사이에 보이는 5 개의 랙과 스프링을 포함한 여러 부품에 적용됐습니다. 시-분 다이얼의 중앙에는 래커 아래로 선레이 브러시 마감을 적용했으며, 외곽에는 선레이 기요세 패턴 위에 그라데이션 다크 블루 래커 마감을 더했으며,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아플리케 아워 인덱스를 배치했습니다.



시계 앞면 가장자리에는 핑크 골드 소재에 7시 방향부터 11시 방향까지 아치를 그리는 레트로그레이드 날짜 표시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분 다이얼의 핑크 골드 내부 링에는 요일과 월을 나타내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으며, 작은 화살표가 각각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듀오미터 구조가 특징인 두 개의 파워 리저브 카운터는 오픈워크 형태이며, 12시 방향의 윤년 디스플레이는 6시 방향의 차임 모드 인디케이터와 대칭을 이룹니다. 시계 뒷면에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플라잉 투르비옹을 비롯한 정교한 오프 올로제리 마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샌드블래스팅, 페를라주, 스네일링, 87시간에 걸쳐 251개 부품에 적용된 핸드 베벨링 기법, 싱크 가공 루비와 스크류, 선레이 꼬뜨 드 제네브, 플랫 폴리싱, 리니어 브러싱 및 서큘러 브러싱 등 총 9가지의 마감 기법을 무브먼트 전반에 걸쳐 적용했습니다.

그랑 트래디션 케이스는 무브먼트의 복잡한 구조를 반영하듯 총 60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티타늄 케이스 본체에 러그, 베젤, 푸셔 등 18K 핑크 골드(750/1000) 요소를 결합했으며, 핑크 골드 부품에는 마이크로블래스팅 및 폴리싱 마감을 조화롭게 적용했습니다.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는 45mm 케이스에 1,3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칼리버를 담아내며 압도적인 소형화 기술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스 시리즈의 시그니처 폴딩 버클을 갖춘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은 특허받은 메커니즘을 통해 완벽한 핏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는 156년에 걸쳐 200여 가지의 다양한 차임 칼리버를 개발해 온 유산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려는 메종의 철학이 담긴 작품입니다. 차임 워치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가 지닌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이 특별한 모델은 단 하나의 피스로 선보입니다.

상세 정보

새로운 듀오미터 그랑 컴플리케이션 아 그랑 소네리

칼리버: 매뉴팩처 칼리버 182, 매뉴얼 와인딩, 배럴 3개, 플라잉 투르비옹, 오픈워크

기능: 시, 분, 그랑 소네리, 뽀띠 소네리,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



파워 리저브: 48 시간(시간 및 캘린더 기능), 그랑 소네리 모드에서 7 시간 30 분 연속 차임, 뽀띠 소네리 모드에서 32 시간 연속 차임

케이스 소재: 18K 5N 핑크 골드(750/1000), 티타늄 내부 본체

크기: 45mm x 16.16mm

케이스백: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오픈워크 및 선레이 기요세 다이얼, 블루 그레이 래커 코팅

시간 및 캘린더 다이얼: 그라데이션 및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다크 블루-그레이 래커

스트랩: 블랙 앨리게이터, 미세 조정 메커니즘을 갖춘 18K 핑크 골드(750/1000) 폴딩 버클

레퍼런스: Q603H480

단일 피스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 ™ 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위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 ™ 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